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부패·공익제보센터’ 현판식 진행**

보호 1호 강혜경씨 선정을 비롯하여 본격적인 센터 운영 개시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센터 1577-8552/홈페이지 개통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권익보호위원회’)가 오늘(29일) 오후 2시, 중앙당사 3층에 위치한 부패·공익제보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

지난 15일에 출범한 부패·공익제보센터는 17일부터 제보 접수(상담전화 1577-8552)를 받아왔고,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와 연계된 독자적인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게 하였다(<https://gongik.theminjoo.kr>). 또한, 전담 변호사가 상담실에 상주하여 제보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제보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현판식을 기점으로, 부패·공익제보센터는 향후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대통령실 주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라 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할 것으로 전해진다.

전현희 위원장은 “제보자들의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결단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말했다./끝/